

제주 '폐윤활유 처리' 근본 대책 없나

도내 정제유 생산업체 관로 막히고 저장탱크 만적 카센터·공업사 등 폐윤활유 발생업체는 처리 난감

도내 카센터, 자동차 공업사 등에서 수거되는 폐윤활유가 재활용 판매되지 못하면서 처리난이 우려되고 있다. 폐윤활유를 재활용해 만든 '정제유'의 제주도내 판로가 끊기면서 폐윤활유 처리·판매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특히 자원 재활용이 가능한 폐윤활유가 도내 인프라 부족으로 도외로 반출되거나 폐윤활유 재활용 업체의 창고에 쌓여만 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도내에서 수거된 폐윤활유는 폐기되거나 폐윤활유 재활용업체에서 정제유로 재생돼 아스콘 회사의 아스팔트 제조 열원으로 공급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강화된 '대기환경보

전법'의 영향으로 도내 아스콘 회사들이 재활용 폐윤활유(정제유) 대신 LPG가스를 열원으로 사용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폐윤활유 재활용 업체와 아스콘 회사와의 거래가 멈췄다.

제주에서 유일하게 폐윤활유 재활용업을 허가 받은 업체인 유성에너지 측에 따르면, 유성에너지는 지난해 27년간 도내 9개 아스콘 회사에 정제유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최근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현재 사실상 재고 처리 답보 상태에 놓였다. 유성에너지의 폐윤활유 저장탱크(5000드럼 규모)도 가득차면서 자동차 공업사 등에서 발생하는 폐윤활유 반입이 중단됐다.

이렇게 도내에서 자체 처리되지 못한 폐윤활유는 카센터, 자동차 공

업사·인테리어 업체 등에 그대로 쌓이거나 타 지역으로 반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유성에너지 측에 의하면 제주에서 발생한 폐윤활유를 자가 처리하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재활용된 폐윤활유를 도내 전력 발전시설의 연료로 공급할 수 있다. 현재 전력 발전시설에선 병커C유, 바이오 증유 등을 연료로 사용해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연료에 정제유를 혼용해 연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환경규제에 따라 일정 친환경성 기준에 적합해야 하는데, 바이오 증유 샘플 97%에 재활용 폐윤활유 3.3%를 섞어 성적을 대조한 결과 바이오 증유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중부발전제주에서 소모하는 바이오 증유의 총량은 24만t인데 비해 제주에서 발생하는 폐윤활유의 총량은 2300t으로 약 1%에 해당하는 양

이어서, 혼용해 연소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게 유성에너지 측의 입장이다.

이에따라 유성에너지는 지속적으로 제주도와 한국전력 측에 정제유를 도내 발전소에 공급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인 상황이라고 전해졌다.

유성에너지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폐윤활유를 재활용·소모해 발전사업에 사용하면 도내 자원 순환에도 바람직한 거라 생각한다"며 "도에서 지난해 4월 해상 운송비 5000만원을 지원해줬으나, 단편적인 대책인 폐윤활유 처리를 위한 행정차원의 장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제유를 만들어도 수요처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도 난감한 입장"이라며 "폐윤활유 처리 대책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서귀포 사진공모전 금상 '군산 올레길'

도내외서 557점 접수 총 45점 수상작 발표



신준철 씨의 '군산 올레길'이 제9회 아름다운 서귀포 사진공모전 금상에 선정됐다.

서귀포시는 지난 19일 제9회 아름다운 서귀포 사진공모전 심사를 개최해 총 45점의 수상작을 선정, 22일 발표했다. 지난 5월 25-6월 12일 사이 작품을 접수한 제9회 아름다운 서귀포 사진공모전에는 도내인 137명·359점, 도외인 74명·198점 등 총 211명이 557점을 출품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심사는 전문사진작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 의해 진행됐다.

심사 결과 ▷금상:신준철 씨의 '군산 올레길' ▷은상(2명):이상훈 씨의 '새해 아침', 박문환 씨의 '서귀포 해녀' ▷동상(2명):양경만 씨의 '그물농기', 강병진 씨의 '은하수를 끌어당기는 할락산'이 뽑혔다. 이외

40점이 입선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작에는 서귀포시장상과 함께 상금이 주어진다. 금상에는 300만원, 은상은 각 100만원, 동상 각 50만원, 입선 각 10만원이다.

서귀포시는 선정된 작품으로 순회 전시와 함께 각종 홍보자료로 제공, 서귀포시를 대내·외에 알리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자세한 수상내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소도리(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영종기자 yjhyeon@ihalla.com

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7월 13-17일 지원서 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0년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22일 공고했다.

이번 검정고시는 8월 22일 실시된다. 응시원서 교부와 현장접수는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도교육청 별관 1층 원서접수 창구와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기초학습도움센터)에서 실시한다. 온라인 접수도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이뤄진다.

검정고시 합격자는 9월 11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젓빛쇠찌르레기 한쌍이 도로표지판 구멍속에 4마리의 새끼를 낳아 기르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를 모았다.

강희민기자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건설노동자 생존권 위협" 민노총건설노조 집회

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2일 서귀포시 서귀동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고용하는 하도급 행위를 중단하고 체불된 임금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조합원 20여명이 참여했으며 "코로나19와 BCT(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파업 등 제주 건설 산업의 악재 속에 불법 하도급까지 더해져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하청업체에서 불법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지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며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고 지난 6개월간 누적된 임금 체불액 8000만원도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제주지부 관계자는 "하청업체의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지역 노동자들이 많다"며 "BCT 파업 이전부터 하면 최대 4개월째 일을 못 하고 있는 조합원도 있다"고 말했다.

또 "임금 체불로 인해 가족들의 생계까지도 위협받고 있다"며 관련 업체들의 책임 있는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도로표지판에 등지 튼 '젓빛쇠찌르레기' 국립생물자원관 "국내 최초 제주서 새끼 낳은 모습 포착"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 봄, 가을 아주 드물게 관찰됐던 희귀 나그네새인 젓빛쇠찌르레기가 제주도 한 도로표지판 구멍에 등지를 만들어 번식에 성공한 것이 확인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사)제주야생동물연구센

터와 섬지역 이동철새 공동조사를 하는 중 봄과 가을에 국내 남부지역을 거쳤던 젓빛쇠찌르레기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 한 도로표지판 구멍에서 번식에 성공한 것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젓빛쇠찌르레기는 몸길이 18-20

cm 정도의 참새목 찌르레기과로 주로 중국 남부와 베트남 등이 주 번식지이다. 봄과 가을철에 제주도와 서해안·남해안 섬 지역에서 극히 드물게 발견된다.

연구진은 "지난달 23일 젓빛쇠찌르레기가 제주도 한 도로표지판 구멍에 등지를 틀고 드나드는 것을 처음 발견해 관찰을 시작했다"며 "지난 16일까지 어미새가 새끼에게 먹이를 먹이고 배설물을 물고 나오는 등 번식 사실을 확인한데 이어 다음날 새

끼 4마리가 무사히 등지를 떠나는 것이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번 젓빛쇠찌르레기의 제주 번식 확인은 아열대기후 지역인 중국 푸젠성에서 주로 번식하는 조류의 번식지가 북상한 사례로 주목되고 있다. 과거에도 제주에서는 물평을 비롯해 붉은해오라기, 붉은부리찌르레기 등 아열대와 열대지역에 사는 조류의 번식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강희민기자 halla21@ihalla.com

축산 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주시는 올 여름 폭염 일수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 대비 축산 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폭염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상황실은 폭염 특보 발생 시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체제로 전환해 폭염 위험 정보를 전파하는 한편 가축 피해 발생시 신속히 현장 대응에 나선다.

이상민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평화를 위한 기억, 그리고 한 걸음”

“6·25 전쟁” 70주년 기념식

6·25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6·25전쟁 70주년
기억 함께 평화**

일 시 | 2020년 6월 25일(목) 10시 20분

장 소 | 제주시 신산공원 6·25 참전기념탑

방송안내 | 제주MBC 생방송 방영(10시 10분부터)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TV 시청을 통해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